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東友會報

1985年 3月 30日 [1] 第100號

발행인
鄭申韓
在益萬鍾
哲炫洙愚

東國大學校同憲會
서울특별시 종구 필동 3가 26
전화: (직) 267-8577 · 274-7449
(교) 267-8131 ~ 9 (465)

우편대체구좌번호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비매품 (月刊)

큰光明 큰智慧 큰 힘으로...



東友會報 지령 1백호 맞아

지난 1976년 5월 8일, 개교 70주년과 함께 창간되었던 6萬同門의 紙上架橋 東友會報가 지령 100호의 연륜을 쌓았다. 세월로는 만 9년—그간 東友會報가 우리 6萬同門과 함께 이루어온 조직강화, 동문발굴, 장학사업의 전개등은 그야말로 커다란 수확이 아닐수 없다.

오늘 100호를 맞은 東友會報는 그 스스로가 東國人의 맥박임을 증명하고 있다. 일면

동문 상호간의 대화와 총회의 광장으로서, 모교에 대해서는 전통의 계승과傳授의 메신저로서, 또 모교와 동창회의 성장과 발전의 편달자로서 그 면모를 하루하루 다듬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직 부족하고 모자란 오늘의 현실이지만 따뜻한 6萬同門의 품속에서 雄飛東國의 기수로서, 명실공히 東國魂의 결집매체로서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 각면 주요내용 ◇

- 3면: 회장 기념사, 총장 축사, 축하회호
- 4 · 5면: 지령 1백호 기념 좌담
- 6면: 각급 지부장 提言, 사무국 칼럼
- 7면: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
- 8 · 9면: 국회의원 당선동문 프로필(18명)
- 10면: 동우제언, 인터뷰
- 11면: 본회 기사
- 12 · 13면: 동문 동정
- 14면: 모교 기사

즐거운 쇼핑, 아늑한 휴식처—



□ 층별안내

	유니버스		
백화점사무실	6	F	•사무실 •옥상휴게실
관광식당가	5	F	•한식(한조) •일식(조원) •중식(다보성) •경양식(미랑) •모밀국수(유래) •민속음식(다래) •커피숍(프락) •스낵(그우기)
가정·문화용품	4	F	•삼성전자 •이남전자 •금성사 •외산전자 •롯데파이오니아 •컴퓨터 •난방용품 •미싱 •온수기 •전화용품 •조명 •미래가구 •설제가구 •죽제품 •공예품 •동자구 •한심부엌가구 •주방용품 •도자기 •목기 •고가구 •통익세사리 •악기코너 •수입공구 •카덴 •카페트, 침구 •지과 •화장 •수공예가구 (원목, 티크) •주방기기
아동·학생용품 스포츠용품	3	F	•이가방 •마모스 •컨트리아동복 •암소바왕자아동복 •천우바지 •콩쥐바지 •호정베이비 •키티 •제니 •비비 •우주아동복 •아동의류 •장원 •에버嬖스 •P.A.T. •코스튬사우스 •캠핑 •언 •레이너 •카발레온 •에버呸 •전우는 •박보이 •프로스聃스 •엑셀스포츠 •블레진저 •월드컵 •나이키 •조즈슈 •푸마 •이동신발 •부시 •과학재료 •원구 •안데르센인형 •키디인형 •크리아트 •학생소품 •액자 •앨범 •사무기기 •레코드 •서예 •문구 •자전거 •헬스 •등신용품 •스포츠용품 •아동집화 •반포스포츠 •루돌프 •베비라
신사·숙녀의류	2	F	•우드하우스 •코모풀밸리 •골먼티 •투모로우우드스 •캐논 •제노마 •세잔느 •끼뜨리네뜨 •아리안 •논노 •동보이 •GJ페션 •아울드피마 •브리타이나 •브리우스 •풀웨어 •애니메이션 •리쌍스 •슈베리너 •간바이어스 •엑설크럽 •잔피얼 •캡브리지 •심성패션 (비킹검, 소사이어티, 로기디스, 워크엔드, 뉴링, 챌린저, 런던포그, 피노키오, 자비드, 웅베르도 세베리, 뻔뻔분네) •Y서초마을 •한동셔츠 •내외셔츠 •맨해탄 •여성니트 •남성니트 •창미모사 •심풀라이프 •피코크 •오리지널날방 •오리지널실타 (수판풀) •마스터69 •포커스
신사·숙녀집화	1	F	•백암 •태창 •쌍방울 •라보라 •비너스 •남영나이론 •와코루 •로얄Y서초 •기획Y서초 •수예점 •악세사리 •귀금속 •안경 •꺽연구 •기방 •핸드백 •피혁소품 •지갑 •벨트 •일몽집화 •양말 •타올 •손수건 •스카프넥타이 •풀리아보이 •넥타이 •모자 •쥬리아 •아모레 •쥬단학 •전매勁 •포장코너 •선물코너 •영애이지 •기획구두 •케쥬얼슈즈 •펜시사출화 •아메리카나 •악국 •포타 •개주얼슈즈
식품·수퍼마켓	B ₁		•피자 •스낵 •튀김 •호도과자 •치킨 •만두 •궁중식품 •떡 •안심 •꿀 •과자 •사탕 •롯데 •해태아이스크림 •쵸코렛 •인주 •건아물 •진미식품 •마미식품 •밀제과 •바로방 •행남지기 •한국도자기 •수입주방 •수입장품 •남부함 •커피숍 •미용실 •수족관 •화원 •구누수선 •멸취제 •도토릭 •만두 •아이스크림 •한국식품 •건강식품 (도미표 햄소시지 생선복)
지하주차장	B ₂		•주차장 •기사대기실 •검품장



즐거운 쇼핑. 아늑한 휴식처

유니버스 백화점·관광호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7-3 대표전화: 485-3121

개점: 오전 10:30 폐점: 오후 8시 정기휴일: 첫째, 셋째 월요일

지령 100호—기념사

자부보다 倍前의 정진을

더욱 뜨거운 성원·동참 “기대”



鄭在哲 본회회장

6만 東國人의 桑榆一東友會報가 舉
서 지령 1백호를 맞았다고 하니 무
엇보다도 기쁘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
각합니다.

지난 76년 개교 70주년 기념일에 창
간호를 냄 이래, 약 9년간 1백호의
지령을 기록했으나, 月刊紙로서 거의

결간 없이, 꾸준히 발행해온 셈입니다. 이렇게 거의 10여년의 세월동안 각계 同門들의 動靜과 모교 소식을 전해주는 반기문 소식통으로서, 또 6만同門의 대화와 우의의 광장으로서, 東友會報가 기여한 바는 자못 큰 것 이리라 믿습니다. 한간 당시 여려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단을 내린 崇戴九전회장의先見之明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제작 실무를 맡아온 사무국장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충실히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분들의 노고가 없었더라면 지령 1백호라는 오늘의 광광은 있을 수 없을 것이며 또한 회보를 없앴다면, 우리 東國大學校 同窓會의 단절되고 확연한 오늘날의 면모는 갖추어 질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시령 1백호라는 이
경사를 맞아, 그동안의 업적과 발자
취에 도취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미
처 생각치 못했고, 이루지 못했던 짐
들을 체직질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교 동국대학교의 발
전에 하루라도 쉬임이 있을 수 없듯
이, 우리 동창회의 용심에 한순간의
정체가 허용되지 않듯이, 會報는 1
백살이라는 자부보다는 다시 태어나는
마음가짐으로, 倍前의 精進을 보여
야 할 것입니다.

매달 8면방의 정기회와 아울러
모교의 개교 80주년을 맞는 내년부터
12면으로 증면될 준비를 갖추어
있고, 또 회보를 아직도 받아보
지 못하는 同門을 대체적으로 발급,
동문 모두가 받아볼 수 있는 會報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인을 비롯한 회장단 및 일원 전원은
가능한 모든 배력을 아끼지 않을 것
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회보의
발전으로 성장될 수 있는 모교
회의 발전은, 몇몇 동문의 힘만으로
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또
한 강조하고자 합니다.

동창회는 6만 張國인 모두의 사
랑방이며 마음의 故鄉이란 말로, 우리
모두는 동창회에 적극 참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
습니다. 물론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용맹진하여 外國을 빛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참여의 길이지만, 그
외에도 회비납부 각종 동문소식 제
보등, 작은 일에서부터 모교 사람을
시작하고 그것이 보이고 또 보여야
만, 우리의 모교 張國대학교와 동창
회의 발전은 기약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령 100호—축사

결집된 동국훈의 전달자

신속한 모교소식 전달 “감사”



黃壽永 모교총장

1976年 5月6日 본교 개교 70주년
의 뜻깊은 날에 창刊호를 發刊했던 東
友會報가 이번號로서 紀念號의 紙
齡 一百號을 맞게된 것을 祝賀드리
립니다.

그동안 東友會報는 우리 東國大學
校를 거쳐간 모든 同門들의 영원한 마
음의 등불로서 同門 상호간의 소식
과 친목도모를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한 때마다 母校의 美譽을 전하는데 至大의
effort를 기울여온 바가 많았습니다. 이
에 이자리를 끝으로 100호를 맞이한
기까지 온갖 努力를 다해온 雷門同
窗회장님과 정재철 現회장님을 비롯
한 임원 여러분들이 노고에 경의를 표
하고자 합니다.

1906년 國運이 危難할 때 佛教界
의 先覺者들이 「教育救國」의 기치를
들고 개교한 우리 東國大學는 내
년이면 開校 80주년을 맞는 명실상부
한 「民族의 私學」으로서 그동안 6
만 5천여 同門을 배출해 냈습니다. 시
금 이를 모든 東國人들은 社會各
分野에 진출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
하고 있으며 또한 조국과 민족을 위
한 국가발전에 제각각 一助를 하고

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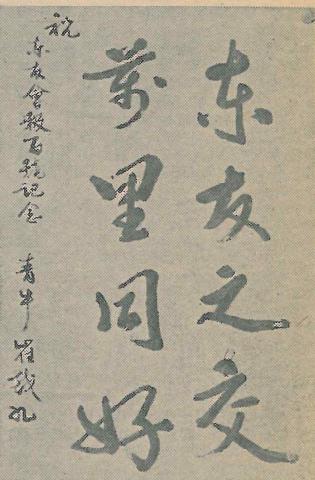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 同窓會의 유기체적
인 협조는 그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
리나라 大學校들의 同窓會 활동에서 어
느 大學校 우리 東國大學의 조직
적인 동창회 활동을 따라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동창회를 비롯하여
각 시·도지부, 직장지회 등 2백80여
개의 방대한 조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80년이라는
유구한 傳統에서 면면히 이어지는 東
國魂의 結集이 아닐수 없습니다.

本校에서는 내년의 開校 80주년을
앞두고 현재 개교 80주년 기념준비위
원회를 발족하고 모든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東
國 80年史편집과 繼藏經의 엔진을 다
각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의 성공은 모두 東國人들의
참여와 뜨거운 성원이 있지 않으면
안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東國大學校는 「세계의 大學」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世界到處에
있는 모든 동부들은 母校의 發展相
偕 함께 東國魂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東友會報의 역할이 그만큼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東友會報 一百호를 기점으로
는 東國의 영원한 밤천이 더욱 다
져지기를 바라며 동문 여러분 앞에 부
처님의 加被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東
友
同
好

취호: 崔載九 본회 명예회장

<우리 東國의 베틀간의 정겨운 시집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것같이 즐겁다. >

*【편집자註】100호부터 바뀌게 된 東友
會報제호 역시 崔載九 명예회장님의
취호임을 알려 드립니다.

東友會報가 달라집니다

6만 東國人의 가교 東友會報가 지령 1백호를 맞았습니다. 이번호부터 여러분의 東友會報가 달라집니다.

①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일간 신문의 일반적 추세에 따라 본문활자가 커졌으며, 가능한 사진을 많이 사용하는 시원한 지면으로 면집방향을 전환했습니다.

② 세로짜기에서 가로짜기로

인쇄매체의 가로쓰기 경향과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가로짜기로 전환함과 더불어 고유명사용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차 한자를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③ 매월 8면을 발행합니다

6만동문의 광장답게 지면을 8면으로 고정, 종합과 동시에, 12면 증면을 적극 추진 하였습니다.

④ 읽을 거리가 풍부한 신문으로

단순한 정보제공, 계시판적 보도뿐 아니라, 「사무

국칼럼」을 신설하고, 「앞서가는 東友會」 「나의 大시절」 「東友攝書」 등 다채로운 기획·특집 및 필·광·시 등 동문부고리의 활성화로 문화적 내용을 보강, 읽을거리 많은 지역의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⑤ 각 지부·지회 소식 강화

2면을 해외 및 각 지부·지회 소식으로 고정, 본부-지회간의 유대강화 및 단위조직 활성화를 다져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부원회를 허시는 신속하고 상세한 기사자료를 시도로 송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의 기사, 한 토막의 소식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 누구나 기자입니다

누구나 기자입니다. 전국각지에, 심지어 해외까지 흘러온 각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6만 東國人의 소식을 파악하는 일은 몇 안되는 사무국직원의 힘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동의 전화, 한 장의 편지가 충실히 東友會報를 가

줍니다. 주변의 동문중 영진·취임·개업·출입국·결혼·회갑·부음등 균황과 동정을 제보해 주시고, 詩·수필·東友提言·부부동문·立志와 각급 모임기사 등을 언제라도 보내 주십시오. 특히 직장이나 자택을 옮기셨을 때에는 필히 연락해 주셔야 회보 반송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령 100호를 맞은 東友會報. 그동안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신 東國人 여러분 모두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각자로, 알찬 지역으로 100호의 연륜에 간해 東國이의 얼굴로서, 광장으로서 부끄럼 없도록 진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985년 3월 일

동국대학교 동창회 사무국

주소: (274) 7449 (267) 8568
전화: (267) 8131~9 교 465

○…… 본회 회원지「東友會報」가 이번 3월호로 지령 1 백호를 맞았습니다. ○…… 지난 76년 5월 8일 개교 70주년 기념일에 창간호를 끄낸 본회는 ○…… 100호를 맞을 때 까지 개교 70주년 창립사업과 東國장학금 1 … ○…… 역할 달성을 주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동문찾기, 단위조직, … ○……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6만동문의 가교」로서의 역할 … ○…… 활동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종교발전을 위한 6만동국인의 의지가 안 … ○…… 시라도 될 수 없듯이, 본보 역시 走馬加鞭의 채찍질을 언제나 필 … ○…… 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령 1 백호를 맞아 다시 태어나는 각으로 … ○……進할 것을 다짐 한본보는, 이제 각계 동문들의 채찍을 얻는 자리 … ○…… 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 주> …

▲시회=마련된 증언에도 회보 지령 1 백호를 기념하는 좌담이나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會報 가 6만동문의 대변인로서, 동창회의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나은 開拓, 더욱 애착, 신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마련해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회보 창간의 주역이었던 동문, 그리고 동창회와 회보를 부구보기도 아끼주시고 협력해주신 여러분들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참석자 개인별 소개)

오늘 좌담에서는 주로 지금까지 회보의 功過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시고, 아울러 내년으로 개교 80주년을 맞게 되는 모교 東國의 발전을 위한 提言들을 충절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羅彥构=우리 학교 동창회가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이만큼 짐세있는 조직을 갖추게 되기까지는 會報의 역량이 커다는 것은 누구든 인정하고 있으십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會報 창간의 결단을 내렸던 崔載九전회장, 그리고 편집 실무를 맡았던 申桂浩 전 춘우동, 동창회를 위해 밤낮없이 봉드로 뛰워온 당시 동창회 임·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와 경의로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여전히 여전히 여기에서 1 백호라는 걸로 짐짓 않는 지령을 쓰게 된 것은 물론 실무 담당자들의 노력이 커졌지만 그만큼 우리 모교에는 저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교와 동창회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뒷받침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창회 일기판, 동문 모두가 마땅히 책임지고 맡아야 할 일인지만, 마음은 있어도 하는 일이 바빠서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창회 실무를 맡고 계신 동문들을 만나면, 한 번 고맙고, 한 번 송구스럽기까지 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倍前의 노력으로 항상 「살아있는 동창회」를 이루어보겠습니다.

▲尹昌浩=회보를 받아볼 때의 기쁨이란, 사무국에서 실제로 제작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장의 경우 거의 모두가 「부수하지만」 경기적으로 회보를 받아 보는 사람은 KA 출신과 그리고 저뿐입니다. 물론 僧大學의 경우도 이제는 거의 동창회보가 나오고 있겠지만 여하간, 동문사회에 꿀고루 배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승격점을 얻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會報을 받았을 때는 반기문에, 떨쳐보내고 그걸 광장에 있어서 뭔지 놓아버렸습니다. 지면을 놀리고 또 칼라판도 내고 해서 어디에 내놓아도 번듯한 신문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 혼자만의 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좀 더 나아갈 발행의 문제는 예산과 직결되는 것 아니 만큼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고, 저 역시 꼬박 꼬박 회비를 납부하는 「교법동문」이 되었습니다. 요구만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동문으로서의 중심으로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啓弘=진문가이신 李啓弘동문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생각에 역시 80년 전통을 자랑하는 동국대학교 동창회보를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紙本身이나 사진사용문제 등에 유의해 주셨으면 해요.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면을 통해서 다양한 「읽을 거리」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물론 「보도기능」은 다하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보도기능의 압수에 만족해 서는 안될듯 싶어요. 증면이 된다면,

동국정신의 계승문제라는가, 사회 현실 속에서 메마르기 쉬운 동문들의 정서를 위해 교양란, 문예등을 포용할 수 있는, 지역의 「나라화」를 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랍니다.

▲李啓弘=李永子 선배님 말씀에 좀더 부연하자면, 취재의 기동성, 현장감 있는 기사의 문제입니다.

이번 12대 총선에서 당선된 우리 동문 국회의원이 18명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 숫자는 국내 대학별로 봐서 3 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 鄭在哲회장님은 정무부장관에 취임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홍보해서 나쁠게 없고 자랑해서 나쁠게 없습니다. 현장에 뛰어들어서 언론부도 하고, 자세하게 취재해서 과감하게 지면 활용하는 것이 동창회와 교보를 「미미지역」 시켜 주며, 바로 이점이 회보의 사업력을 견디니.

물론 이번 100호에 이런 기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육심같아서는 호외로도 벌써 한다거나 해서 보

다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기사를 제공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편집·제작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선플과제는 인력 보충이 있고, 그리하여 보니 또 예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군요.

▲사회=다음에는 본보 창간의 주역 이신 申선배님께서 창간 당시 상황을 …

▲尹天泳=70년 5월 8일 꽃들은 고교 개교 70주년 기념일(76년도 회보 첫 기총회)이었다고 기억합니다만)에 창간된 『東友會報』가 어느덧 지령 1 백호를 맞았다고 하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 당시는 제가 아직 1명만 두고 동창회를 운영하던 때였습니다만 활동을 하다보니까 회보의 필요성이 떠오르게 느껴졌습니다.

우선 회비 걷는 문제만 해도 그래요. 지금처럼 회비 납부를 모든 회원의 의무로 생각하는 인식이 박혀있지 않을 때였으니까, 도대체 회비를 내라면 무슨 공돈이라도 내는 듯한 기

東國의 주인은

분들을 가진단 말이예요. 안되겠구나 싶어서 회보발간을 강력하게 견의했어요. 그럼에도 회장단에서도 贊反 양론이 있지요. 흥보매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現代화급의 저작이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이셨어요.

에 기사자료가 생겼을 때, 동창회로 전화걸기가 쉬운 일은 아니리고요. 꼽박 잇기도 쉽고, 또 자기 자신에 관계된 일이라 쪽쓰럽기도 하고 해서요. 지금 끝 통문을 들고 보니, 명예기자 제도가 잘 활용된다면 좋겠군요. 평소 잘 알던 분이 명예기자로 있다면, 그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거든요. 그렇게 모아진 기사자료를 명예기자로 사무국으로 연락한다면 잘될듯 싶어요.



▲尹天泳=장간 덧붙일 것은, 아까도 여러동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회보를 받는 순간 우리 동문들의 마음은 정말 모교에, 마음의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 됩니다.

특히 고국 소식에 굶주리 있는 해외동포의 경우나 서울보다 출판물에 접할 기회가 적은 지방동문의 경우 회보에 대한 이적은 더욱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年初에도 美國거주 同門들이 연하장을 보내왔는데, 거기 보면 제 안부보다 회보, 안부를 봄는 부분이 더 많을 정도였으니까요. (웃음)

아울러 회보간의定期化입니다.

「배달이 말끔면 會報가 오면…」하고 기다리게 되고, 또 그때 회보가 도착되어야만 자연 會報나 동창회에 관심이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2회』 막바지 『東友會報』에 공이 많은 분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해드렸습니다.

▲사회=그렇지 않아도 1년 후 기념자 축회를 오는 4월에 있을 이사회 때에 겸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때에 申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두분과 그밖에 공연이 크신 분들에게 공로써 수여를 상상해보았습니다.

▲申寬浩=동우회보 100호는 제가 만들었으니다만 그때 당시부터 도지면부속에 관한 지적들이 있었어요. 우선 부과가 커야 내용도 많고, 내용이 많아야 자신의 기호에 맞는 일

東友會報의 영구

韓國自動車保險(株)	大韓毛紡(株)	三一機工社	大會長金聖涉
忠南紡織(株)	大平洋開發(株)	副社長李錫龍	忠南紡織(株)
代表理事安鍾植	副會長柳周馨	副代表理事高麗化學(株)	副代表理事申鉉泰
高麗化學(株)	副會長柳周馨	副會長柳周馨	副會長柳周馨
代表理事高麗化學(株)	副會長柳周馨	副會長柳周馨	副會長柳周馨
會計士認會計事務所	副會長柳周馨	副會長柳周馨	副會長柳周馨
協成泰이프販賣(株)	副會長柳周馨	副會長柳周馨	副會長柳周馨
韓國住宅銀行	副會長柳周馨	副會長柳周馨	副會長柳周馨
營業部長金在基	副會長柳周馨	副會長柳周馨	副會長柳周馨
護士金東正	副會長柳周馨	副會長柳周馨	副會長柳周馨

18명 당선...東國저력 확인



▲ 12대 국회의원에 당선, 정무장관에 취임한 本會 鄭 회장이 박수로 축하하는 동문들에 손을 흔들며 담배하고 있다.

12대 당선동문 명단

성명	학부	일련번호	속지	역구	분
崔載九	52국문국민당	52	전국구		
鄭在哲	52정치민정당	52	상주·삼구·고성		
李英駿	59법학민한당	59	파주·고양		
金東英	60정치신민당	60	산청·함양·거창		
朴翊柱	61정치민정당	61	남해·하동		
慎順範	61정치신민당	61	여수·여천·광양		
張忠準	61경제신민당	61	전국구		
金榮龜	62경제국민당	62	전국구		
辛敏善	63경제국민당	63	영월·평창·정선		
朴珪植	66경제민정당	66	부천·김포·강화		
朴旺植	68정체신민당	68	수원·화성		
趙炳鳳	67大院국민당	67	남양주·양평		
李尚政	69丁院민한당	69	천안·사천		
金容午	71行政신민당	71	신민당		
(鏡牛)	73行院민정당	73	광주 서구		
李榮一	73行院민정당	73	광주 서구		
梁旭植	78行院민정당	78	원성·원주·순창		
李範俊	79行院민정당	79	강릉·양양·영주		
明華燮	81行院신민당	81	인천·남구		

2석이 즐고 李洛坤(李民韓·院行院) 동문의 의원직 승계로 총 16석의 의석으로

이번 총선에 임했던 동문들은 선전율에 18席으로 2席이 늘어난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14명, 전국구 4명이 당선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의석의 6%가 넘으며 전국 대학별 당선자 수 순위로는 서울대·고대·高大에 이어 3번째 순위, 소수정당별로는 民正黨 7명·新民黨 6명·國民黨 3명·民韓黨 2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는 지역구 31명·선택구 8명 모두 38명이 출전하여 18명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는데, 끝내 달로 아간게 활약한 동문들도 金殷腹·高炳鉉·李元範·黃明秀·崔炯佑·洪萬萬·林熙富 등으로 7명이나 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동문끼리 경합을 벌인 것도 4곳이나 되어 인천中南區에서는 명희·성동문이 3위로 따랐었으나, 慶南·大邱·咸陽·거창에서는 解禁·金東英·吳緣國·洪淳池·柳根昌·金鎮福·洪淑淑·文泰植·金聖馳·金銘善·朴俊亨·禹鍾植·朴完一·禹國一·南都冰·秋東憲·柳周聲부회장, 그리고 협역으로 낙선한 林德生 동문들이 참석, 자리 빛냈다.

이날 행사에는 趙基明·金東益·全宗植·洪鳳來·洪淳池·柳根昌·金鎮福·洪淑淑·文泰植·金聖馳·金銘善·朴俊亨·禹鍾植·朴完一·禹國一·南都冰·秋東憲·柳周聲부회장, 그리고 협역으로 낙선한 林德生 동문들이 참석, 자리 빛냈다.

이날 행사에는 趙基明·金東益·全宗植·洪鳳來·洪淳池·柳根昌·金鎮福·洪淑淑·文泰植·金聖馳·金銘善·朴俊亨·禹鍾植·朴完一·禹國一·南都冰·秋東憲·柳周聲부회장, 그리고 협역으로 낙선한 林德生 동문들이 참석, 자리 빛냈다.

이번이 많았던 이번 총선은 동문當落에도 예상과 큰 오차를 보여,有力 했던 現役 7명(金殷腹·金殷夏·黃明秀·林恆圭·高炳鉉·李元範·李洛坤)이 의외로 고개를 끄셨으며, 新民黨의 중후인 崔炯佑동문의 낙선 역시 충격적 이었다.

이번이 많았던 이번 총선은 동문當落에도 예상과 큰 오차를 보여,有力 했던 現役 7명(金殷腹·金殷夏·黃明秀·林恆圭·高炳鉉·李元範·李洛坤)이 의외로 고개를 끄셨으며, 新民黨의 중후인 崔炯佑동문의 낙선 역시 충격적 이었다.

6석 金殷夏·全宗植·洪淳池·柳根昌·金鎮福·洪淑淑·文泰植·金聖馳·金銘善·朴俊亨·禹鍾植·朴完一·禹國一·南都冰·秋東憲·柳周聲부회장, 그리고 협역으로 낙선한 林德生 동문들이 참석, 자리 빛냈다.

지난 2월 12일 실시된 제 12대 국회 의원총선에서 총 18명이 당선의 영광을 차지함으로써 개교이래 최다당선기록을 세우며 동시에 東國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11월에는 17명이 당선되었으나 李英駿(李英駿·趙炳鳳·慎順範·金榮龜·李平·李範俊·李榮一 등), 3석이 선출된 李洛坤(李洛坤·梁旭植·朴珪植·明華燮·張忠準·金容午 등) 6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8·9면>



▲ 金東英·尹容午 등 동문에게 축하패를 수여하는 鄭在哲회장(左)과 黃壽永총장(右).

제12대 국회의원 당선동문 축하연이 지난 3월 8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본회 회장단, 입원 및 동문, 모교간부동 3백여명의 동국인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려, 東國의 저력과 단립된 면모를 다시 한번 과시했다.

먼저 축하자 전원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전 총장 및 모교간부들이 축하의

꽃다발을 증정했으며, 이어 黃壽永총장 죽사, 吳緣國이사장이 축하연에 참석해 축하의사를 전달했다.

鄭在哲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1대

2명이 늘어난 18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함으로써 東國의 저력을 과시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또한 당선동문들은 소속 정당을 떠나서, 항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또 모교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온다는 축하연을 열었다.

지난 11월에는 17명이 당선되었으나 李英駿(李英駿·趙炳鳳·慎順範·金榮龜·李平·李範俊·李榮一 등), 3석이 선출된 李洛坤(李洛坤·梁旭植·朴珪植·明華燮·張忠準·金容午 등) 6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8·9면>

四顧五起한 意志의 동국인
朴 旺 植 동문 (68정외·新民黨)



전통적으로 회귀한 일인 스님의 국회
출마에 대해서도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國校 6
학년때 집
을 빼서
나와, 고
학으로 모
교를 졸
업한 뒤 7
· 8 · 9
· 10대의
낙선꼴에
四顧五起
에 성공
한 의지

의 外國人。

4 · 19, 6 · 3 투쟁, 3 투쟁 대투쟁 등으로 출증 당원이 되었으며, 육고를 치르기도 한 골수당원인 차원복(47才 · 水原 · 華城) 등은 자신의 부정경력과 민推協운영위인의 간편으로 「비밀」을 일으켜 12대 국회에進入한 初選。

교교 정의과(68년)와 대학원을 거쳐, 蔡신민당 중앙실무위원회 위원을 역임.
4 · 19, 6 · 3 범청년 민주수호투쟁 위원회 출신당협의장 국체 대표·부韓國委員, 동학사상연구소 이사, 통일연구협회 중앙연구위원, 대한노인회 회성지부 자문위원 등 다채로운 경력.

10代 죄연소 舉當選의 풍운아
李 尚 政 동문 (69行院 · 民韓黨)



10대 때 무소속으로 출마 거목鄧憲柱씨를 꺾고 최연소當選(36歲 · 晋州 · 三千浦 · 晉陽 · 銅川) 화려한 政界 데뷔로

화려한 경력보다는 11대, 4년 동안 약 6백여 일동안 지역구를 누비면서, 농민과 서민층의 대변자로 지역개발에 입했던 노력에 대한 엿기. 본회이사

화려한 경력···金메달 再選
李範 奕 동문 (80行院 · 民正黨)



공한 風雲兒로, 4년 만에 3 차례 금메달을 수상한 韓國農水產 위원장·육군中將 예편(육사 8期) 해운항만 청장 등화려한 경력으로 4년 동안 지역구를 누비, 金메달을 받게 됐다.

전국농법협회장을 지낸 뛰어난 연변을 가진 李尚政(43歲 · 69行院) 동문은 끈끈한 사람관계, 구신民黨원내수석부總務를 외끌野黨경력으로, 짧은 서거기간동안 밥을 낮삼아 전국에서 제일 넓은 선거구를 누비, 金메달을 받게 됐다.

10대 때는 무소속당선 직후 구신民黨에 입당, 원내수석부총무로 지냈으며, 작년 해禁되자마자 民韓黨에서 地區黨 위원장을 따내는 등 순발력도 강하다.

남다른 포교열의 스님
金 容 午 동문 (71行院 · 신민당)



68년 교재 단서를 지었으며, 73년엔 밀양에서 출마, 낙선 했다가 이번에 新民黨전국구로 당선된 金容午(57

세 · 蔡신민당 檀國구) 동문은, 「퍼져 습여서」로 소문나 있지만, 그를 아는 사람은 후진양성과 포교사업에 남다른 정열을 가진 「진짜 스님」이라고 입을 모으며,

變 (62歲 · 仁川종 · 남구) 동문은 「民正黨」

母校 선배이자 政治 선배인 金殷夏(52정치) 동문의 6회 관록을 5

만여 표 차로 뒤를 딛고 金殷夏를 따냈다.

明華(62 歲 · 仁川종 · 남구) 동문은 「民正黨」

보를 찾고 金殷夏에게 둘째 딸인 金殷夏(60 歲 · 蔡신민당) 아

동성회복 투쟁同志會 중임의장(77년)을

지냈으며 9대 때는 고향인 충남서산에

밝고 아름답게 그리고 화려하게
가족의 빠르크리직션!



政治放學 끝난 4選 崔載九 명예회장

72년부터 10년간 본의 회상을 지내 東國人 모두에 대해서도 친숙한 얼굴이 崔載九(56歲 · 52國務 · 현 문예회장) 봉동은 2차解禁되어 國民黨전국구로 國會에 진출함으로써, 오랜 政治放學을 끝냈다.

崔동문은 京畿大교수·교묘學生處長서리·건설공제조합理事長·조례증주국회副會長·체육회副會長·몬드리을 팀피選手團長·국회經科委員長·모교財團理事를 역임한 경력.

3代 국회의원인 선친 崔甲煥의 원의 대를 이어 父 崔國城에서 3選의 경력을 가진 崔동문은 12대 국회의원으로 4선(40 · 9 · 10 · 11 · 12 · 13 · 14)에 걸친 경력을 기록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佛敎人』(선친 崔甲煥 씨가 前통도사 승덕) 이라고 公私할 만큼 독실한 信者이며, 宗立大學을 나와 佛敎信徒會長을 거친 그에게 정치 규제 기간동안에도 「佛敎思想」 저작으로 활약해왔다.

이면서도 6회에 진입한 11대에서는 무소속의 헤드 кап을 달고

再選, 議政同友會을 이끌기도 했으며, 원활한 키에 藥樂藥파리 잡이의 솜씨도 갖춘 서민형. 바쁜 일之余에는 賽馬와 소탈한 성품에 누구에게나 겸손, 솔직한 것이 그의 인상이다.

충남 예산 출신으로 9, 11대 의원, 蔡신민당 원내부총무, 충무국장, 의정동우회장 등 역임. 오랫동안 본회 회장을 맡기도 했으며 협회본회 이사.

黃明秀(53 · 정치) 동문은 지난 19일 新韓民主黨 훈련원장 취임했다.

지난 12대 총선에서 의외의 고배를 들었으나 그동안의 아담경력을 인정받

『선명야당』의 기자들 높이 이내 걸고 滅土(山淸 · 咸陽 · 居昌) 북부에 성공한 金東英(49才 · 60정치) 동문은 제 1야당인 新民黨 원내총무의 중책을 맡았다.

구신民黨 조직국장·사무국국장·慶南道支部長·정부위원을 거쳐 3 차례 해금되어 民推協상임운영위원으로 있는 정통야당의 重鎮(3선).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소리를 여당이 민주주의 바탕위에서 들으려고 한다면 12대 국회는 순탄하게 시작하여 풀려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강조, 종래의 투사철 이미지보다, 제 1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崔炳佑·黃明秀동문들과 함께 民推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金동문은 「야권통합·직선제개헌」 등 2대 명제를 위해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國會동우회會長·본회 이사장을 맡아 동국인에게도 친숙한 얼굴이며, 평소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공헌을 해오고 있다.

金東英동문 第一野党的院內總務 중책

『11代 全國區에서 지역구 (光州서구) 를의 저원 시기가 늦어졌다. 光州 특유의 野勢, 그리고 漸強한 前現役들과의 亂戰에 2位당선으로 再選에 성공. 끝이어 민정당 총재비서실장으로 기용되어 거듭 경사를 맞았다.

71년統一院 상임위원으로 활동해 10년여간 통일업무에 종사해 왔던 만큼, 회의정세를 보는 시각이 뛰어나다.

도교에서 정치학강의를 하기도 했던 學榮一(46세 · 73行院) 동문은 「분단 시대의 통일논리」「협당의 전략」 등

力著를 냈던 이론가로서의 저력과 유

창한 언변으로

『光州시민 인체까지나 해태티니 거즈의 膨散에 만 시비를 걸고 살것이니』 고호소,

光州주민을 설득해 뱃전호 소력이 인정 받아 育재비서실장에 발탁됐다

현재 본회이사로 활약중.



李榮一동문

서 출마해 낙선, 이번에 再起했다. 30여년간 출증 아당의 기사발길을 걸었으며, 3 차례 해금. 民推協 운영위원·부幹事長의 선임형으로 港都 인천의 「바탕」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他地」에서 당선됐다).

宣昌產 회장



尹
青 ^ 63
光
 사회비평가▼

아니고 으 히려 뒷걸 음만치고있 블론 1960년대에 비하면 전 블도 몇제 더 지었고, 경주에 도 캠퍼스가 생겼고, 재학생 숫자도 많이 늘어난 것은 잘알고 있다. 그러나 보잘것 없던 대학들이 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판

도 이제 6만에 육박하는 것 으로 알고 있다. 빙해진에 발 간된 東國人名錄만 봐도 동창 회의 그 규모가 국내 한 대학을 제외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단단치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뿐아니라 작년에 벌써 13회 인사를 지낸 '東國의 밤' 민족과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다.

사가 아니요, 회보가 많은 면으로 자주 나온다 해서 등사가 아니나. 그러나 혹시 지금의 사무국의 규모가 6만동문의 의지와 목구에 부합하기에 걸맞지 않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듦다.

東友會報가 1백호를 맞았는데, 많은 생각이 듦다. 그리고 다시 많은 기대가 생긴다.

수 있는 길을 찾아볼수있을지 모르겠다. 무슨 고시어몇명 합격하고 무슨 운동부에 우승을 하고 인하고는 문제다. 파거 우리들이 가졌던 東國人的 모습, 불교적인 배움에 깊이 있는 행정철학과 국문단을 훑어본 東國文學의 기사, 설동원두를 주를잡던 동국인의 기魄과 기심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내 모교가 하루빨리 전통과 긍지를 살리지 못하는 무

력하고 타선에 짓은大學이라

는 입장에서 벗어나길바란다.

東國精神을 되찾기 바란다. 직장 몇개를 너집당하기에

급하는 소인배를 배출하기 보다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감

히 책임질 수 있는 거인을 키우는 곳, 내 모교의 그런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그리

고 우리 악강전역의 동창회가 그렇게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東友會報 지령 1백호... 많은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같았던

비교도 안될만큼 끝없이 먼 것

이다.

백년쯤후에, 東友會報는 어찌

면 비데오에으로 매일 저녁

걸릴지도 모르겠다.

외형적 발전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느덧 東友會報가 1백호를 맞았더니 우선 반갑다. 더우기 내년으로 우리 모교가 80주년을 맞는 마당이니 그 기쁨은 한층 더 한다. 그럼에도 어쩐지 마음 한 구석 어쉬운 감을 갖출수 없다. 아니라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대학에 다니던 20여년전의 1960년대를 생각해 보면 오늘이 우리 모교는 제자리 걸음을

시래, 몇백배로 늘인데 비하면 우리 모교의 처지는 말이 아 니라는 것이다.

동창회 역시 민족스럽지 않다. 모교대학 동창회가 어디에 회관을 짓고, 모교대학 동창회가 전학장을 짓고, 몇억을 모교에 전달했다는 등의 얘기가 접할 때마다 답답했다. 물론 70주 장학금도 있고 작년엔 1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흡족친 못한다. 우리 동문들의 수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많고 시인·소설가, 박사·사업가도 수두룩한 그야말로 막강한 전력을 갖춘 동창회인 것이다. 그런 데도 우리에게 아직 회관은 커녕 벽돌한 사무실이나 마련되지 못한 것은 부는 연유일 같다. 내래까지 떨어었던 각종 장학사업의 지속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협정당국과 함께 교세 확장을 위한 여러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등 동문들이 「직접 뛰어들어」 동문과 교기교동행할

『점체되어있다』고 말해 질 수도 있을 오늘의 우리 모교. 이제 우리 동창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 우리 모교에 이 제끼지의 역할이 아닌 어떤 분명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같다. 내래까지 떨어었던 각종 장학사업의 지속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협정당국과 함께 교세 확장을 위한 여러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등 동문들이 「직접 뛰어들어」 동문과 교기교동행할

在所中 入學... 46세의 신입생



朴
潤
沃
씨

8年 걸린 제2人生... 東國서 시작

수석졸업 '성실하게 얻은 學點만 價值.'



金
吾
碩
潤

『단내수석은 예상했지만 전체 수석은 뜻밖입니다.』 전학년 평점평균 4.5점에 4.26을 얻어 이번에 전체 수석의 영예를 차지한 金吾碩(무역학과) 교수는 결손하게 수석을

업의 소감을 털어놓는다. 78년 견강고시를 거쳐 母校에 입학한 후 군부리를 마치고 81년도에 복학하여 학업에 精進한 끝에 오늘의 기쁨을 얻은 金吾碩은 『단편적인』 것을 지양, 넓은 안목으로 꿈하고 꿈은 시야를 벗어나 꿈과 꿈으로 자기의 양식을 더나가야 하는 시간대가 되어야한다.』고 신입생들에게 대학생생활에 대해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학점의 노가 되어야만 하는 노즘의 대학현실에 대해서는 『성실수석왕의 책도인 誰밀이 사회의 최소한의 자(足)이기 때문에 성실을 제외했을 때

의 수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서 얻은 수치가 지향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대학인의 사회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2남 4녀 중 차남인 金吾은 전공과 관련된 기사로 스크립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취미라며, 『주이진 생활에 충실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좌우명으로 『 가능한 대학원에 진학하여 계속 공부를 하겠다』며 학업을 향한 굳은 의지를 보이기도 한다.

鄭相永(67법학)동문이 경영학을 금강건설(주)에 입사.

인터뷰
화제의 동국인 3명과 함께

북여중인 재소자로서, 더구나 46세의 晚學으로 母校佛教大佛教科學에 입학한 朴鈞沃씨는 차분히 「파거」를 털어놓는다.

71년 7월 조들리는 빛을 해결하겠다는 생 각으로 강도를 했다가 10년 혈을 선포하고 복여중이던 82년 대학진학을 결심. 한 스님의 교화설법을 듣고經典을 탐독한것이 憶心의 계기이다. 고종학력 겸강고시(83년), 대학입학력 고사표를 거쳐 이번 견강과 일시에서 한계의 영광을 안았다. 차남의 이번 입학은 모교 80년 역사상 최초의 일이며, 대중속의 불교, 파고드는 포교사업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3일 특별사방으로 영어의 러나 박씨는 경전가문에서도 특히 千壽經의 「罪無自性從心起(죄자체는 自性이 없고 마음에 의한 것임)」라는 구절에 큰 감화를 받았다고 말을 잇는다. 『10개월만에 탄생, 제 1의 人生을 시작했지만 잡다운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8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었습니다.』라고 남다른 여건속에 그동안의 각고를 표현하며 『시간의 중요성이 나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人生은 그 자체가 나리온다』는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학문탐구와 신앙생활에 출신하겠습니까』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차씨의 학습조식이 일련지자 조제종 교도소 교사 박3중(서울 자비원주지)스님이 나서서 布施과 빛을 얻어 지난달 29일 등록을 마쳐 주기도 했다고.

수석입학 "전통어린 캠퍼스 마음에 듭니다."



柳
仁
煥
潤

『원서접수전에 출신고등학교와 본교에서 상담을하고 지원해 어 느정도 전체수석을 예상은 했었지만 직접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 보살펴주신 부모님과 주위분들

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대입학력 고사에서 38점을 모교 경제학과를 지원. 전체 수석입학이라는 영광을 안은 柳仁煥(22세·동내부고주)군은 이렇게 수석합격의 소감을 밝혔다.

전북 군산이 고향으로 거처는 동안 줄곧 수석을 차지해온 苏才이기호(하사현) 교수는 4년간 학점을 모아온 학과를 지원해온 柳仁煥에게 『이번까지 4년간 학점을 모았지만, 교과목이 정직한 분위기를 주고 오랜 전통에 문인들이 좋아보입니다』라고 말하는 柳군은 『교양학부에 불교과목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는데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이었으면 좋겠다』며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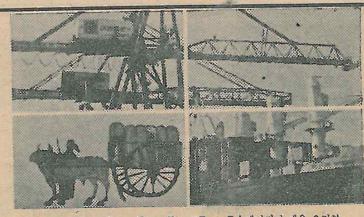
고득점의 비결을 묻자 『그저

판독이겠죠. 4번을 시험보는 동안 오류율들을 잘했다고나 할까요』 라며 재치 있게 말을 반복한다.

『本校를 택하게 된 이유는 따로없고 출신고등학교가 본교부속이었던 것이 영향을 준 것 같아』고 말하는 柳군은 학교의 청인상을 『아직은 캠퍼스도 다 돌아보지 못했지만, 교풍이 정직한 분위기를 주고 오랜 전통에 문인들이 좋아보입니다』라고 말하는 柳군은 『교양학부에 불교과목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는데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이었으면 좋겠다』며 밝혔다.



대표이사
㈜나



수레바퀴시대와 고속시대
수레바퀴 배우 요진한
수레바퀴 있었던 때가 있었던 때

작가들이나 활동가들이나 혹은 나부터에서 그 시대 유통산업의 티끌을 쳐내고 있었던 때

이 당시 신식로가 빠르고 대형물류의 차이가 뛰어있었으며 그 속은 그 소년구수의 어한을 이어갔던 때

이 당시에서 지금의 고속도로가 이어진 대형물류의 활동같은 사업들은 그 당시 기상 선단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동문주식회사
EXPRESS CO., LTD.

全南 高興郡守로

趙三奎 동문

趙三奎(55경제)동문은 경북津浦郡守에서 高興郡守로 자리교환을 했다.

趙三奎(55경제)동문은 오랫동안 全南道 각부서와 光州 西區廳장을 지내 일선지방행정에 헌신하며, 82년부터 康津郡守로 재직해왔다.

경북 関慶郡守로

趙鏞洙 동문

趙鏞洙(59법학)동문은 경북寧城郡守에서 관리로 자리교환을 했다.

趙鏞洙(59법학)동문은 오랫동안 경북도 각부서와 일선군수로 행정경력을 쌓아왔다.

부이사관准진, 全州市 부시장

李正琴 동문

李圭圭(60정치)동문은 부이사관으로 승진 益山郡守에서 全州市 부시장으로 榮進했다.

李原동은 全北 민방국장·南原郡守·益山郡守等을 거쳐면서 25여년간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貿易協會 서울 管理局長

李炯鍾 동문

李炯鍾(60사학)동문은 한국부역협회 大邱부지부에서 서울市 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75)4393

李동문은 군복무후인 64년 동법회에 입사, 해외시장과장·외원과장등 오직을 거쳤으며, 그동안 同대구지부자로 재직해왔다.

地方行政研修院 入校

金萬淵 동문

金萬淵(61법학)동문은 동대문 구청 도시정비국장에서 서울시 청 문화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 金萬淵(61법학)동문은 시청 내務局市政課, 水道局經理과, 기획실法務課 등을 거쳤으며, 지난 78년엔 대통령 균정포장을 받았습니다.

地方行政研修院 入校

尹永植 동문

尹永植(61법학)동문은 동대문 구청 도시정비국장에서 서울시 청 문화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放送事業團 상무이사

李肯班 동문

李肯班(65법학)동문은 放送事業團 常務理事로 榮進했다.

李肯班(65법학)동문은 韓國外換은행 대구 지점대리, 보전간사실과장, 인도 네시아지점처장, 홍익동지점개설 준비 위원장을 거쳤다.

新亞昌 江原지사 副支社長

尹宰淳 동문

尹宰淳(65경정)동문은 韓電 강원지사 기획관리실장에서 同부지사장으로 榮進했다. 춘천③3111

尹宰淳(65경정)동문은 오랫동안 韓電副社長으로 있으면서 본의 및 모교 박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였다.

尹宰淳(65경정)동문은 現代大 副支社長으로 재직 중이다.

韓電 江原지사 副支社長

尹宰淳 동문

尹宰淳(65경정)동문은 韓電 강원지사 기획관리실장에서 同부지사장으로 榮進했다. 춘천③3111

尹宰淳(65경정)동문은 오랫동안 韩國電力 副社長으로 있으면서 본의 및 모교 박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였다.

尹宰淳(65경정)동문은 現代大 副支社長으로 재직 중이다.

<農業協同組合>

▲元光書(61경제)동문=城北支店에서 삼내동 지점장으로.

▲宋發起(62경문)=광산군지부장에서 退溪路지점장으로.

(776) 4111

宋文龍은 출입직후 능혈에 부신 仁川부지점장을 거쳤으며, 외한업무로 농협동우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沈甲流(62경제)=중강회 감사부지장에서 資材부 차장으로.

▲李允九(71상학)=남양주군支교도 지도경계과장에서 영업부 대리로.

▲姜聖采(75농학)=珍島 제소육종장 대리에서 유공부 체조과 대리로.

朝銀 銀行支점장으로

陳宗龜 동문

陳宗龜(63경제)동문은 朝興銀行 富川支店長에서 告成支점장으로자리를 옮겼다.

다. 전화번호

호: (265)

金... 노조委員長, 朝銀영업

부기장, 汝矣島, 德壽, 驛三洞지점장을 거쳐 그동안 부천지점장으로 근무해온 陳동문은 현재 회사 이사와 朝銀東友會부회장으로, 본회 발전을 위해 활약 중이다.

易振公 싱가폴 무역館長

金萬律 동문

金萬律(61법학)동문은 대한 무역진흥공사 싱가포르 무역관장으로 자리매김했다.

金동문은 同무역공사 암스테르담무역관장을 지냈다.

서울高檢 공판송구부장으로

申相斗 동문

申相斗(64법학)동문은 법무부 심의관에서 서울 고검 공판송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外換銀行 방배동지점장

申定淳 동문

申定淳(64경정)동문은 外換銀行 흥국증권지점장에서 방배동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申동문은 韓國外換은행 대구 지점대리, 보전간사실과장, 인도 네시아지점처장, 홍익동지점개설 준비 위원장을 거쳤다.

放送事業團 상무이사

李肯班 동문

李肯班(65법학)동문은 放送事業團 常務理事로 榮進했다.

新亞昌 江原지사 副支社長

尹宰淳 동문

尹宰淳(65경정)동문은 韓電 강원지사 기획관리실장에서 同부지사장으로 榮進했다. 춘천③3111

尹宰淳(65경정)동문은 오랫동안 韩國電力 副支社長으로 있으면서 본의 및 모교 박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였다.

尹宰淳(65경정)동문은 現代大 副支社長으로 재직 중이다.

<第一銀行>

羅聖塗(65상학)동문

羅聖塗(65상학)동문은 朝銀 告成支점장에서 南山支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李聖洙(71경학)=南陽주군支교도 지도경계과장에서 영업부 대리로.

▲姜聖采(75농학)=珍島 제소육종장 대리에서 유공부 체조과 대리로.

羅聖塗(65상학)동문은 현재 朝銀東友會부회장으로서 회사 이사와 朝銀告成支점장에 이바지해온 朝銀東友會이기도 한다.

▲劉慶平(69법학)동문=강남지점대리에서 증권투자부 대리로 자리를 옮겼다.

▲李聖洙(71경학)동문=국제 영업부 차장으로서 부산 범일동지점장으로자리를 옮겼다.

▲李聖洙(71경학)동문=국제 영업부 차장으로서 부산 범일동지점장으로자리를 옮겼다.

▲具本旭(71경영)동문=광화문

부리장에서 덕수지점대리로.

대리에서 덕수지점대리로.

▲金明鶴(79전산)동문=도곡동대리에서 검사부 검사역으로

▲全泳德(81무역)동문=남산지점에서 국제영업부 차장으로서 朝銀東友會부회장으로.

▲姜榮浩(81회계)동문=국제영업부에서 德壽지점으로.

▲金東祚(83농경)동문=화곡동에서 江西로.

<成業公社>

▲姜眞照(65경영)동문=부탁역무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姜東浩(81무역)동문=부탁역무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金東祚(83농경)동문=화곡동에서 江西로.

▲黃龍雲(54경제)동문이 釜山銀行 행장에 취임했다.

黃龍雲은 출입직후 釜山銀行 행장에 입행, 30여년간 광활한 대내외 표장을 받는 등, 그 능력과 경영수완을 널리 인정받았다.

釜山銀行長에 취임

반야 왔다.

明洞·小公洞·鍾路·龍山等 주로 금융가의 1번지 일선 점포장을 맡으면서 밤군의 수완을 보였으며, 영업부장을 구했다. 80년에 이사(經理)로 출진부분장으로 밤되면서 다음해에는 상무이사로 전하는 등 승진가도를 달리, 드디어 행장의 고지에 도달.

한국 제 2의都市로 당시 단지 많아 하락한 편이라도 말이 많은 釜山 경제권의 실정을 고려할 때 그 활약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세련된 매너와 미남형의 전문금융인인 黃龍雲은 믿을수 있는 업무처리와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평점. 회사 사장으로 釜山銀行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기여를 해왔다.

國民銀行 부행장 영진

역임하고 84년 이사로 승진했다.

특히 2년동안의 영업부장 재임기간동안 예금 7백억원, 상호부금적립 5백억원을 증가시키는 대기록으로 수립시킨 기간동안 탁월한 업무능력을 소유자.

순차고 부드러운 첫인상처럼 겸손한 성격이지만,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박력과 세심함을 겸비하고 있다.

청렴결백한 인품으로 상하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金天壽(57경제)동문은 國民銀行 이사에서 副行장으로 榮進했다.

金天壽은 75년 지삼성 승진이래, 東豆川·石串洞·서교동·南大門지점장을 거쳐 본점 심사 2부장·영업부장 등을

부인 李善善여사와의 사이에 1男 3女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寿과 여행.

金
天
壽
동
문

金天壽(57경제)동문은 國民銀行 이사에서 副行장으로 榮進했다.

金天壽은 75년 지삼성 승진이래, 東豆川·石串洞·서교동·南大門지점장을 거쳐 본점 심사 2부장·영업부장 등을

부인 李善善여사와의 사이에 1男 3女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寿과 여행.

第一銀行 전무이사 승진

年이 경물을 쌓아온 銀行人。

반포·퇴계로·서소문동 주요 시설들을 거쳤고 특히 저축부장을 두루 돌아나며 역임하면서 동행의 예금구조 기반을 다져는데 크게 공헌했다.

금융실무와 이론에 밝을뿐 아니라 외화활동도 넓고, 각종 회의마다 바쁜 말을 잘하는 「소신파」라는 중명. 부하들에게도 자상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룬다.

80년 상임이사로 선임되었으며 84년부터 상임감사로 있다가 이번에 영접책 된다. 현재 회사 상무이사로 활약중이며, 제일은 東友會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기여를 하고 있다.

宋寶烈
동
문

宋寶烈(57경제)동문은 第一銀行 상위감사에서 전무이사로 榮進했다.

宋동문은 출입과 동시에 同行에 입사, 일선집포장과 본점 투무 거치면서 30

水原大 教授로

洪申善
동
문

洪申善(70상학)동문은 安東大學에서 水原大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65년 現代文學敎授으로 데뷔한 洪申善은 「樓壁集」「雪屋集」「 삶 거듭 살아도」「우리 이웃 사람들」 등 4권의 시집과, 서문집「現實與言語」, 편지「우리文學의 論爭 史」 등을 출판한 경력으로 있다.

고교 박사과정을 수료, 모교 東大新聞社 편집국장·서울藝術専修대학원 감사·安東大 조교수 등을 거쳤다. (715) 3150

대우공사副社長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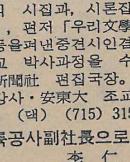
李仁禎
동
문

李仁禎(72상학)동문은 (주)又榮 전무이사에서 대우공사副社長으로 자리를 옮겼다.

朴柱官(81·國文)이면이 첫詩集「南光州」를 발간했다.

1973년 「婆と 蛙」誌로 데뷔했으나 6~7년 동안 작품활동을 많다가 81년 「5月詩」(同人集)으로 가입하면서 활동을 보이고 있는朴柱官은

東國詩集에서 落葉集『南光州』에 발표되었던 「量量」(5月詩) 4집에 신작 「산도밀며 바다도 멀며」 등 최근작까지 76편의作品을 담고있다.

宋
寶
烈
동
문

宋寶烈(57경제)동문은 第一銀行 상위감사에서 전무이사로 榮進했다.

宋동문은 출입과 동시에 同行에 입사, 일선집포장과 본점 투무 거치면서 30

水原大 教授로

洪申善
동
문

洪申善(70상학)동문은 (주)又榮 전무이사에서 대우공사副社長으로 자리를 옮겼다.

(833)2606

朴柱官
동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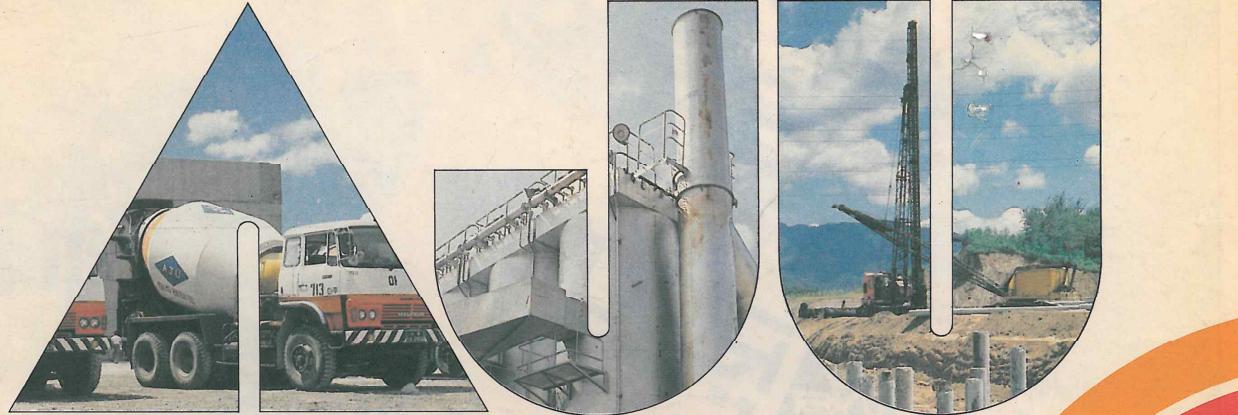
朴柱官(81·國文)이면이 첫詩集「南光州」를 발간했다.

1973년 「婆과 蛙」誌로 데뷔했으나 6~7년 동안 작품활동을 많다가 81년 「5月詩」(同人集)으로 가입하면서 활동을 보이고 있는朴柱官은

東國詩集에서 落葉集『南光州』에 발표되었던 「量量」(5月詩) 4집에 신작 「산도밀며 바다도 멀며」 등 최근작까지 76편의作品을 담고있다.

創刊 100号 記念

회장: 文泰植 (49 전문)
 감사: 文漢植 (58 영문)
 전무이사: 白文基 (63 법학)



A J U 국내최대의 시멘트제품 메이커

서울市江南区駅三洞山77-7 (韓承里7-8層)
 본사영업부(代) 555-1911, 554-2551

망우공장 434-4081-3
 구로공장 853-3161-5

아주산업주식회사

아주파이프공업주식회사

양산고압콘크리트공업(주)

수원공장 (033) 8-6110-4
 오산공장 (0339) 8-3398, 5706

병점공장 (033) 32-4421, 2768

예금안내

신용부금

금융기관중 가장 이율이 높은
 연 14%의 목돈마련 적금제도
 (가입과 동시에 대출가능)

예탁금

금융기관중 최고이율의 정기예금
 ● 29일이하: 연 9%
 ● 1개월이상: 연 12.5%
 ● 3개월이상: 연 13%
 ● 3년간 운영수익률: 15.79%
 (중도해약이 자유롭고 중도해약시 이자
 손해 없음)

부금예수금

단 하루만 맡기셔도
 연 9%나 되는 통장식 보통예금

신라교역(주) 대표이사
 동창회부회장 박준형



진흥상호신용금고는 우량상장법인
 신라교역(주)의 계열사로서
 금고사상 최초로 기업을 공개한
 국내최대의 신용금고입니다.

절대안전, 최고수익을 보장하는 —



(주) 진흥상호신용금고

본점: 778-6611 (代) (한국은행앞)
 영동지점: 545-3653 (代) (강남구청옆)

대출안내

어음할인

- 할인율
 - 적격업체: 연 17.8%
 - 담보부 어음할인: 연 17.8%
 - 기타업체: 연 18.5%

부금대출

신용부금 가입즉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담보 또는 신용으로
 대출가능 (대출기간: 10~35개월)
 (이자율: 연 18.5%)

소액신용대출

부금 가입없이 먼저 목돈을 쓰시고
 월수, 반월수, 일수로 분할상환
 (대출기간: 75일~24개월)

(주) 진흥상호신용금고 자직동문
 공호영 (81년 회계)
 여상식 (82년 회계)
 정일대 (83년 회계)
 박치환 (83년 경제)

||||| 생명공학에서도 앞서가는 태평양화학 |||||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태평양화학

싱그러운 레몬향취 가슴까지 상쾌하다



찬란한 아침.
눈부신 햇살처럼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새롭다.
레몬의 향으로 멋지게 펼치는 사나이 하루, 쾌남루트 레몬.
피부에 와닿는 상쾌한 감촉
가슴까지 스며드는 레몬의 숨결...
싱그러운 그 향취에 하루가 상쾌하다.
새봄, 새로운 남성화장품—쾌남루트 레몬

그 깊은 사나이의 세계

**ROOT**

레몬로션/스킨/쉐이빙홀



(권장소비자가격) • 레몬로션...150㎖, 5,300원 • 레몬스킨...150㎖, 5,300원 • 레몬쉐이빙홀...200g, 4,000원 • 부정외래품 물아내어 명령시회 이로하자.